

하박국네 이야기 2019. 3

E-mail : kahh1691@hanmail.net 연락처 : 070-4643-7633 (인터넷 전화)
(855)096-345-5024 / 096-358-6300 (캄보디아)
카카오ID : kahh0691 후원계좌 : 884-06767-266-01 시티은행 가형호
502-910658-70507 K E B 하나은행 가형호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4,5)



새해가 시작됐지 옛것처럼 같은데 벌써 3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왼쪽의 사진처럼 처음에는 툭툭이와 1톤차까지 건너갈 수 있는 튼튼한 대나무 다리를 사용했는데 작년에 섬을 있는 콘크리트 다리가 완공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사람만 건널 수 있는 좁은 다리를 만들어서 관광코스로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려했던 대나무다리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형식적으로 관광지로서 만들어놓은 다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형식적으로 바뀌어 가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이라면 영적인 위기 상태이며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는 자기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 상태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있는 데도 살아있는 척 포장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의 말씀은 요즘에 학사아이하고 시편말씀, 특히 다윗의 시편을 나누면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그분 안에 사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인이 사랑에 빠져들었을 때에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고 보기를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듯이 다윗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맞보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참된 원동력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시편을 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숨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매일 매일 사는 삶이 되어야겠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2) 이 말씀과 같이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 주일예배 ♥



지금까지 말씀으로 신앙을 다지기 위해서 예배후에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장소의 한계성을 느끼게 됩니다. 꺼뜨편 섬 지역은 학교 건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배의 의미보다 행사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았는데 장소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꺼뜨메이 섬 지역은 작은 섬이지만 학교의 위치가 마을하고 많이 떨어진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한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고 성경공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꺼뜨편 지역은 섬이 큰 지역이지만 환경적인 요인과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배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아이들을 관리하고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떨든 아이들을 신앙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성경공부 시간도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데 주일에 7시예배를 드리고 다음 9시에 꺼뜨메이 섬 지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기때문에 예배후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효과적인 교육과 예배가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학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처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중, 고등학생때 학업을 그만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 가는 섬마을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한창 공부해야할 시기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중, 고등학교때 공부를 그만 두고 공장에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만나서 어렵더라도 더 공부할 것을 권유하며 도와주려고 하지만 부모님나 아이들의 생각에는 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사를 하면서 신앙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일군으로 세우는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의 다음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어릴 때부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일군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 영어교실 ♥



1월 중순부터 학교교실을 빌려서 방과 후 영어교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요원 아이들을 모으고 교육하기 위해서 10-20명의 인원으로 제한했는데 첫날에 30명이 넘게 몰려와서 첫 시간에 시험을 보고 성적에 따라 일단 20명으로 결정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재는 실제로 국제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로 하고 성경구절을 영어로 해서 암기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다 보니 면장의 허락을 받고 또한 공부시간에 종교적인 부분을 강요하지 말 것을 서류상으로 서약하는 것도 있어서 앞으로는 장소를 바꿔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몇 명 나오다가 주일예배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새로운 장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세자녀 ♥

저희 세말은 피부병(피부공팡이균 진균증)이 몸에 생겨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한국에 들어가 치료 중에 있습니다. 피부병 치료가 오래 걸릴 거라는 의사소견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속히 모든 피부병이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아이들 홈 스쿨을 시작하였습니다. 필요한 교재와 자료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필요한 선생님도 붙여주시며, 이를 담당하는 아내에게 영.육간에 강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수법이나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제목 ♥

1. 모든 사역에 시험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군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4월 달 캄보디아 새해(졸츠남)에 아이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하소서.
2. 큰 섬(꺼쏘뎌) 지역과 작은 섬(꺼트메이) 두 지역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기쁨의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작은 섬(꺼트메이)에 교회와 문화센터가 세워져서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신앙촌으로 거듭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이 섬들이 우상을 섬기며 드렸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되어질 수 있게 하소서.
3. 영어교실을 통하여 아이들이 주일예배에도 참여하고 믿음의 일군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완다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이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소서.
4. 중학생들 학사도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중학생은 생활비와 학비가 한 명당 약 75\$ 들어가는데 이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여자 사역자도 보내주셔서 여자 어린아이들을 잘 보살피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소서. **(중학교부터 학사를 하기위해서 한 사람당 10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한명씩 자매 결연을 하거나 조금씩(만원, 이만원 ...) 후원과 기도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방문동안(4/2-4/18)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 입혀 주셔서 모든 일정들이 잘 마무리되어지며 특히 비자관계 잘 해결되어지며 기도의 동역자 후원자들이 잘 연결되게 하소서. 아이들 피부병 치료가 속히 잘 완치되어질 수 있게 하소서.
6. 완다 청년이 성경공부를 통하여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며 거듭남의 비밀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군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7. 세 자네가 올해부터 홈 스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수고하는 아내에게 영.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필요한 자료들이 잘 준비되어지며 아이들의 연령에 필요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동역자 교사도 붙여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일군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8. 모든 가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영적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영. 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하은, 하원, 하영이가 홈 스쿨에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며 필요한 학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좋은 일군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며, 주 파송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

— 캄보디아에서 가형호, 손은숙, 하은, 하원, 하영 선교사 올림 —